

데스크시작



김미은  
편집부장·문화부장

좋아하는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나를 뻥 세상의 전부' 서문에서 이런 대목을 발견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의 주장을 듣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보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에 더 크게 설득되고 더 큰 경이감이 찾아온다."

시인의 생각에 동의한다. 때론 나를 감동시키는 것, 나를 이해시키는 것은 장황한 설명이나 명료한 논리가 아닌 '누군가의 소소한 삶의 모습' 일 때가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다.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과의 '거리'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우선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식당에 가면 없던 공간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 접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앉는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가끔 재제기를 할 때면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고 주눅이 들기도 든다. 전철에선 여러 곳의 빈자리를 두고 내 곁에 누군가 앉으면 그의 눈치 없음을 탓하거나 모르게 눈살이 찌

나를 감동시킨 '삶의 한 순간'

푸려진다.

답 없는 운동장으로 주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던 집 앞 중학교에 언제부터인가 높은 철제 담장이 생겼다. 코로나가 한창 일 때 '학교 출입을 삼가 달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운동장을 출입하는 게 보여 '아이들이 등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러면 안 될 텐데' 싶었는데 역시나 담장을 두른 것이다. 높은 담장이 코로나로 바뀐 현실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코로나가 안긴 '소소한 위로'

물론 코로나가 이런 슬픈 풍경만 만들어 낸 건 아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작은 일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에게도 경이감을 안겨거나 감동을 전한 '사람들'과 조우한 순간이 많았다.

먼저 운전 중 만난 공사장 안내원의 이야기다. 불발뒤에도 긴팔 옷과 워커 등으로 무장한 채 차량을 통제하던 그는 피약발 아래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운전자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다. 반대편 쪽 인부가 그냥 깃발을 흔드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마음은 따뜻해졌고, 차 안에 있던 나도 덩달아 인사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이번엔 꽃 이야기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우리 동 입구에 작은 화단이 생겼다. 온갖 꽃들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마

치 코로나에 지친 일상에서 단비를 만난 듯. 사람들도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밭이 우리 동에만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만든 꽃밭인줄 알았는데 화단을 만든 주인공은 같은 동네 살고 있는 60대 아저씨였다.

물을 주던 아저씨는 "사람들이 좋아하니 내가 더 기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심을 거라고 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도 함께 화초를 심기 시작했다며 웃었다. 선한 영향력이다. 한 주민이 지나가며 말했다. "아저씨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일본 드라마에서 만난 장면도 따뜻함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남편은 실직 후 꼬치구이 집을 열고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직장은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곳. 대학생 딸은 엄마가 집 앞 마트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가 아빠의 실직으로 주변에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해서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계산대에 있다 보면 고객들 살림살이를 알게 되는데, 세일 상품만 사 가는 사람이나 할인된 저가 도시락과 반찬을 사가는 동네 사람들이 행여 마음을 쓸까 봐 그런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배려한 것이다.

아무래도 올해 가장 마음에 남는 건 두 아이가 될 것 같다. 그중 한 명은 "늘 집

에 꽃을 꽂아 두는데 식물에서 꽃이나 꽃봉오리를 잘라 낸 '절화'(切花)를 사 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울어 구근을 사 온 후 키워 꽃을 본다"는, 음악 채팅방에서 만난 엄마의 사연에 등장했던 소년이다. 또한 명은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 하나 없는 식당에서 할매가 혼자 식탁 뒤는 모습'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호수'(정혜윤의 '삶을 바꾸는 책 읽기')다.

이 이야기는 다른 글에도 썼고, 아는 이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친구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커 가고 어떤 어른이 될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아이들의 저 마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겪인 꽃봉오리가 슬픈 소년

코로나를 나름 잘 견뎌 내던 주변 사람들도 요즘엔 "이제 지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럴 때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딱딱한 삶에 위안을 준다.

김소연 시인의 말을 조금 바꿔 본다. 그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도, 때론 누군가의 어느 '한 순간'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생애 전반에 있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건너 가는 우리들이 그 '한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되기를.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엄마, 저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환  
함평 강은교회장로

올해는 전 지구적 초유의 사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어 세계가 거의 마비되어 가고 있어 혼란스럽다. 그런 와중에 해외 입양됐던 한 여성이 부모를 찾아 내한했다가 통한의 눈물 흘리며 한국을 떠난 사연이 주목을 받았다. "엄마, 저 많이 힘들었어요." 지난 6월 그 이야기를 보도한 뉴스의 제목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 여성이 아버지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36년 만에 아버지를 찾게 된다. 주인공 카라 보스(한국명 강미숙) 씨는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발견되어(당시 두 살) 이듬해 미국 미시간주 한 백인 가정에 입양된다. 지극한 양육 아래

성인이 된 후 네덜란드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는데 딸을 낳은 후 한국인 친어머니를 만날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두 살 되던 해, '우리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나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를 생각하며 엄마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입양 당시 서류에는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고 한국을 오가며 찾아 나선다. 결국 지난해 유전자 정보 대조로 아버지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딸 자신이 친딸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지난 6월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라고 판결한다.

처음 DNA가 일치하는 이를 찾아냈지만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고 어떤 정보도 알려 주려 하지 않았다. "엄마를 찾은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느낌이나 가족의 스캔들을 능가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내가 분노했다"고 강 씨는 소송했던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마스크를 벗고 "엄마, 제 얼굴 아세요? 미

안해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만나고 싶어요"라고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생활 보호법은 입양인의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 등 친부모의 정보를 부모들이 동의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이에 강 씨는 2016년 자신의 유전자 자료를 온라인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생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생부 오씨를 찾아갔다. 그 가족은 강 씨의 존재를 부정했으나 며칠 후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적대적인 태도로 10여 분만에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경호원 2명을 대동해 변호사 사무실에 왔으나 모자, 선글라스까지 착용하여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엄마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열었던 한국과 관련된 나의 정체성과 국가이자 사회인 한국에 문을 닫는 다. 셀 수 없이 많이 상처받았고 거부당했다.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내 집은 암스테르담의 내 가족들과의 집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큰 상처를 입고 떠났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가장 필요했던 어린 시절에 해외로 입양되어 성장하며 겪어야 했던 세상의 온갖 풍파를 딛고

일어선 뒤 이제 자신을 낳아 준 부모님을 찾아 나왔으나, 친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생사조차 모른 채 돌아서는 눈물의 강 씨 사진이 필자의 맘을 더욱 아프게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 출생 이후 입양된 인원은 24만 8728명이다. 이중 67.5%인 16만 7864명이 해외 입양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입양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3분의 2는 해외 입양이다. 이렇듯 우리들이 손수 키우지 못하고 아픈 마음으로 해외로 보냈지만, 이제 성장하여 다시 혈육을 찾아 온 그들을 당시의 사정을 헤아리며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의식과 법적 시스템을 이제 되돌아봐야 한다.

가족을 '밥'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어도 다음날 또 배고픈 것처럼 사랑도 꾸준히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강 씨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 약 4년 동안의 노력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 속에 떠났다.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해외 입양된 사람들이 고국에서 혈육을 더 자유롭게 찾고 상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기 고

코로나 블루와 마음 챙김 명상



김태균  
광주보건대학교 학생복지과장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해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불안이나 우울,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되면서 우울증과 짜증, 무기력감 등에 휩싸이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이 실제 통계 분석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인원은 59만 57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20대로, 같은 기간 28.3% 증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부하되어 소진되는 경향성이 청년층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층 특히 20대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세대의 주된 특징인 왕성한 활동력과 사회적 관계성이 장기적으로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방역 당국에서는 '심리적' 방역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발병 초기에는 불안과 공포 관리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격리 상황으로 인한 가정 폭력, '물지마 범죄' 등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 장애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 해소에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불안과 우울, 무기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근 서구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음 챙김 명상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에 존재하는 자신을 '알아차림'하는, 일종의 심신을 단련시키는 수련법이

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일하다 나도 모르게 깜빡 다른 생각에 매몰되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하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 다시 하던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 감정들을 한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억지로 생각을 지우는 연습이 아니라 지금 떠오르고 사라지는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노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한걸음 물러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챙김 명상은 최근 들어 뇌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신의학 및 심리학 분야, 특히 스트레스와 정서 조절에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 결과 마음 챙김 명상은 세계 각국에서 초중고 및 대학 내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도입되고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구글, IBM, 페이스북, 삼성, LG와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사내 인재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을 처음 접한 이들은 대부분 생각이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고 그러던 그럴수록 더 많은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게 된다. 이는 명상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잘해야겠다는 의도나 욕구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수용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알아차림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이나 과오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늘 외부에서 인정받고자 애쓴다. 하지만 정작 간절히 찾고자 하는 것들은 항상 자기 내면에 있다. 잠시 멈춤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일상에서 꾸준히 갖는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社說

문화전당 운영 일원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개관 이후 5년째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ACC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수립 및 대외 협력 등을 책임지고, 문화원이 교육·연구와 콘텐츠 창·제작 등을 맡는 구조다. 이처럼 조직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지난달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조직 일원화 및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과 법안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역 문화단체들은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고 운영 체제 일원화 및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지난 5년간 지역사회가 제기해 온 전문 인력 충원과 적정 예산 지원, 전담 운영 과정의 시민·전문가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CC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조직 일원화와 정부 상설 기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시아를 이끄는 문화 콘텐츠 창·제작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등이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학교 건축자재서 석면 검출...전수조사해야

광주의 한 초등학교와 구정 공사현장 등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벽돌 공사가 완료된 광주 남초등학교 시공 현장과 광주 광산구청 지하 2층 구내식당 벽면 등 두 곳에서 소량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제 환경보건 시민센터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급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들은 지난 7월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황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 소포물과 건축 자재상에서 판매 중인 20개(서울 자재상 5곳, 광주 자재상 4곳, 온라인 소포물 11곳 등) 백시멘트와 황토물말 제품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석면 함유 여부 등을 분석했다고 한다. 정밀 분석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25~7% 검출됐다. 이들 6개 제품은 천마실업의 '칼라시멘트'와 황토

제품, 경기 여주 등에서 만든 '침향토' 등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벽돌 공사가 완료된 광주 남초등학교 시공 현장과 광주 광산구청 지하 2층 구내식당 벽면 등 두 곳에서 소량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오랜 잠복기를 거쳐 악성 폐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 혹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안전관리에 나섰으며 특히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대대적으로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단체들의 조사 결과와 내용이 따라 다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광주 지역 다른 학교와 관공서 공사 현장에도 석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면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가 시급한 이유다.

無等鼓

흔히 에디슨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정작 전기(電氣)의 대중화를 이끈 사람은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1856-1943)다. 에디슨에 가려 대중에 덜 알려져 있을 뿐, 니콜라 테슬라는 진정한 발명가로 과학계에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테슬라는 원래 에디슨 회사의 직원이었다. 당시 에디슨은 직류 기반의 전기 설비를 보급하고 있었다. 직류 전기는 양극(+에서 음극(-)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전압 조절이 어려워 장거리 송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사실 발

니콜라 테슬라

전수만 5만 개가 넘었 테슬라와 수소 트럭 회였던 에디슨은 전기 설비를 팔면서 발전 설비도 함께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반면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보급해 전기의 대중화를 꾀하고자 했다. 교류 전기는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압 조절이 가능해 어디든 송전이 가능하다. 테슬라는 에디슨을 설득해 교류 전기 보급을 하고자 했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회사를 창업하고 1888년 교류 전기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때부터 에디슨과 그 유명한 20년 '전류 전쟁'이 시작된다. 테슬라가 웨스팅하

우스와 손잡고 교류 설비를 보급하자 에디슨은 동물을 감전시키는 실험을 공개하는 등 '교류=감전사'라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이에 테슬라는 고주파 교류 전기를 자신의 몸에 통과시켜 전구를 밝히는 실험으로 교류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그리고 사카고 세계박람회 전기 공급과 나이아가라폭포 수력발전기 설치 계약을 따냈다. 전류 전쟁은 테슬라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돈보다는 발명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노년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다.

요즘 세계 기술시장은 선도하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수소 트럭 회였던 에디슨은 전기 설비를 팔면서 발전 설비도 함께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반면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보급해 전기의 대중화를 꾀하고자 했다. 교류 전기는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압 조절이 가능해 어디든 송전이 가능하다. 테슬라는 에디슨을 설득해 교류 전기 보급을 하고자 했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회사를 창업하고 1888년 교류 전기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때부터 에디슨과 그 유명한 20년 '전류 전쟁'이 시작된다. 테슬라가 웨스팅하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월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